

김민환의 세상읽기



마음을 열어야 새 길이 열린다

박근혜 정부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청문회가 아직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틀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당선인 나름으로 고심이야 했겠지만 첫 인사에 대한 중령은 별로 굽지 않다. 주요 신문도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감동을 주지 않은 인사'라고 평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말이 돌고 있다.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도 출신) 인사라느니 위성미(위스콘신 대·성균관대·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인사라느니 하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있다. 고소영(고려대·소방교회·영남) 인사를 한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었을 법도 한데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다시 도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호남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 인사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할까? 선거 전에는 물론 선거 후에도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나 새누리당 주변에서 대통령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언론에서는 종리나 비서실장 또는 경제 부총리에 호남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

는 설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그런 공연이나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탕평은 커녕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흘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다. 애초에 이런 작정이었다면 탕평이라는 말 앞에 큰 대(大)자를 붙이거나 말일이지 호남사람 놀려먹자는 것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호남사람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큰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을 계제가 아니다. 박 당선인 측에 별로 할 말도 없다. 90% 가까이 다른 후보를 찍어놓고, 지금 와서 박 당선인에게 시혜(施惠)라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일에 관한 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뛰라고 하든지 간에, 호남사람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토해봤자 자존심만 상할 따름이다.

그 대신 호남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럴 심한 후보 한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꼽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만한 호남 출신 후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희망을 걸 만한 호

남출신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남에 사람이 없어서인가? 씨가 말라버린 것인가?

아니다. 호남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간판만 달면 그저 막대기라도 국회의원에 당선한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이상시절부터 그랬다.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 되기란 땅 땅이고 혼자 기였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은 별로 없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물레는 아직도 정당 선택의 용통성을 차단하고 있다. 가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출신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예외적으로 무소속 지위를 고수하는 이가 더 있었지만 민주당이 기를 쓰고 숨통을 죄어 고사시켰다.

이런 결과가 초래한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서울에서 보면 양당제를 축으로 한 대의제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도 같지만 호남 정치판은 천만의 말씀이다. 호남은 일단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양당제 대의정치는 보파리에 뮤여 시렁 위에 놓여 있다.

호남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려면 호남의 정치구도가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의제가 살고, 큰 인물이 나온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재선, 3선, 4선을 죽 먹듯이 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대의제도 내실을 기할 수 없고, 큰 인물도 나올 수 없다.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후보에 대해 사시(斜視)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소속이라 해서 떠어놓고 제쳐놓는 것은 운동치 않다. 무소속 후보라 하더라도 인물을 보고 과감하게 발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철수 전 후보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만약 안철수씨가 새로 당을 만든다면(?) 아당의 분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의제를 살리고 인물을 키울 수 있다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분열이라는 모험까지도 걸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선택枝(選擇枝)에 대해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종교칼럼



조 발그니
목포가톨릭대 교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들 역시 모순된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다. 매번 정부에게 생활불가는 잡아달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이제 가격과 폐지고기 가격은 내려야 하지만 우리집 아파트 가격은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내리면 집값도 내려야 하는 것이 이치이다.

물론 미래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의 미래, 나아가 자녀의 미래까지는 걱정하고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의 출발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회학에서는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정착은 승자독식이 정당화되고 남들에게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 사람은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은 누구의 것일까? 가장 없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의 것인가? 이러한 순환고리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순환고리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학교폭력이며 왕따가 아닐까?

얼마 전 교회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참회와 회개의 사순기가 시작되었다. 천주교회는 이 사순기가 참회의 상징인 제를 축복하여 머리에 얹는 예식으로 시작한다. 신자들에 게 재를 얹으면서 신부들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라고 한다. 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이다.

새 정부를 준비하며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들은 후보자들이 왜 그리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민

한번 생각해보시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직장에서 내 경쟁자를 도와야 할까? 이를테면 동료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그의 일을 대신해 주어야 할까?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 하는 그의 일을 좀 덜어 주어야 할까?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예상 문제와 답안을 알려 줘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게 좋을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필요에 따른다. 외연에는,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뺏고까지 이기적인 동기에만 이끌린다는 인간들의 사회에서, 나아가 생존과 번식을 향한 끝없는 쟁탈과 이전투구(泥田鬪狗)로 가득한 이 지구 생태계에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개체를 위해 나서는 협력과 이타성, 자기희생은 애당초 가당치 않은 것일까?

일군의 학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초협력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시 성찰해야 한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을 생각하는 말은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고의 말이다. 이는 성경에서 신처럼 되고 싶은 인간이 신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 먹고 신의 사회에서 쓰거나면서 들었던 말이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첫 죄는 욕심이었고, 이 죄가 결국 신과 인간을 갈라놓았다.

욕심을 갖게 되면 남을 보지 못한다. 욕심은 자신을 자기 안에 사로잡히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이 가져야 힘을 갖는다는 환상은 우리를 더욱 탐욕스럽게 한다. 사람은 혼자가 되면 의롭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룬다. 욕심을 내는 이는 스스로를 외롭게 하는 것이다. 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욕심은 인간을 외롭게 한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근본을 살피고 이웃과 갈라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 한다. 순례, 희생, 협동은 애초부터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되는 '초협력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박근혜 정부, 신임 대한체육회장에 기대 크다

총장(국회의원)으로서, 저열한 2파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정부와 새로 선출된 대한체육회장이 의기투합해 우리나라 체육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체육이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가면서 고민해보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그동안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가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과 특성을 사회안정에 활용해온다면서 성장해왔다. 국가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정책화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제고시키는데 어느 수단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뒷에 성장세는 대단히 빨랐다. 올림픽 등에서의 선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스포츠 10대 강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특히 김연아,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박태환 등 한국이 낳은 스포츠스타들은 대한민국의 국적(國格)을 높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엘리트체육

의 구조는 발전의 한계를 갖고 있다. 학교와 기업에서 운동선수를 인위적으로 육성시켜 입시방편으로 국제대회의 성적을 유지해오다 선수자원의 부족과 잇따른 운동부 해체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체계는 학교체육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청소년의 여가교육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대한체육회장은 향후 우리나라 체육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비록 정부조직 개편 준비에서는 체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 설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체육을 전문분야로 다루는 조직은 조작으로 격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 우려되고 있는 체육정책의 수립, 시행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해내면서 체육인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체육위원회' 설치 운영도 검토됐으면 한다. 이는 체육인의 사기양양을 비롯해 체육의 전문성 확보, 선진체육 구현 가능성의 효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체육복지 실현

을 위한 정책개발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는 체육자치구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세부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정부기금 가운데 3500억원에 이르는 체육기금을 체육기구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체계는 학교체육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청소년의 여가교육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 생생력을 확보하면서 선수 고갈 등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첨경의 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체육의 기여도에 비해 지원 구조적으로는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한체육회장의 역할과 중책은 막중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커다란 관심과 든든한 지원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아니 된다.

많은 체육인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이유라 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커다란 관심과 든든한 지원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아니 된다.

일탈과 마약은 곧 범죄고, 범죄는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가장 큰 일 아닌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해롭고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흡연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과감한 사회적인 금연 정책을 펴야한다. 그 첫 번째가 가정에서 아빠들의 금연이다. 우리 아빠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청소년 흡연 예방 첫걸음은 가정에서의 금연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아둡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 한계라고들 말한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도 집안에서 지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을 호기심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마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절마다 자기 자신이 그럴까 하는 의심도 하기 싫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무관심

과 자녀들을 믿는 맹목적인 안심이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을 담배라는 '마약'의 소굴에 점차 빠져들게 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도 같다.

특히 흡연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자신부터 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자식들이 흡연에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면 자녀들도 본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살아 있는 금연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社說

지역 대선공약 '空約'으로 끝낸 이명박 정권

사흘 후면 물러나는 이명박 정권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광주·전남 지역 민들의 심경은 한마디로 허탈감 뿐이다. 지역 인맥이 철저히 소외됐고, 지역 대선공약 또한 공약(空約)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광주·전남 대선공약 중 완료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니 이 정권 내내 제기됐던 '호남 훌대론'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나마 추진된 공약들로 '찔립 예산'으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고, 일부 공약은 착수조차 못했다고 한다. 또 정상 추진되던 공약사업 중 일부는 타 차지 단체들이 끼어들면서 무기한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다.

MB정권의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은 광주 13년, 전남 12년 등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20개 공약은 표면적으론 추진 중에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 초기 단계인 용역 실시나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을 기다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는 광주 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과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무안국제 공항의 중개물류 중심 공항 육성 등 5건은 아예 추진조차 못하고 있다. 1건의 '영산 강 살리기 사업'이 있기는 하나 4대강 사업으로 실시돼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공약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성장동력 사업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호남 훌대자 표를 의식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도 호남 차별에서 비롯된 국민통합에 역행한 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정권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적어도 예산과 공약 민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각자 인사에서의 소외를 의식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도 호남 차별에서 비롯된 국민통합에 역행한 데 있다.

순환도로 승소, 혈세 누출 막는 계기 삼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공익성을 최우선 고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혈세 먹는 하마'가 된 1구간의 재정질감에 청신호가 켜졌다. 물론 시가 직접 매입해 운영할 수 있는 단초도 마련된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0일 1구간 민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독명령 취소소송에 서원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광주시 동의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우선 광주 순환도로투자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직접 매입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매입한다면 2205억 원이라는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어 관용구에 'in wig and gown'이란 표현이 있다. '법복을 입고'라는 의미로, 법관의 상징이 가발과 가운(법복)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중에서도 가발은 법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한다.

법정에 가발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60년대 영국 철스2세때였다. 직종별로 차이가 있어 법정변호사(변호사)는 타이 위그(tie-wigs)라

해서 머리의 반을 묶는 가발을 썼고, 판사들은 밥 위그(bob-wigs)라 해서 타이 위그보다 약간 작은 가발을 썼다.